



신지에 가을 '바쁘다 바빠'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골프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가 일본과 미국, 한국을 오가는 강행군을 다시 시작했다.

신지에는 5일부터 일본 기후현 미조나이골프장(파72·6천537야드)에서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골프5레이디스투너먼트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1일 출국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정선에서 하이원컵 대회를 마친 뒤 하루를 쉬고 곧 비행기를 탔다.

신지에는 이 대회에 이어 이사가와현 가와야마조골프장에서 11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되는 일본여자프로골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PRGR레이디스컵 우승으로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회원이 된 신지에는 "일본 대회에도 출전해서 회원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골프5레이디스투너먼트와 일본선수권대회를 일정에 넣었다.

두 대회에는 일본 상급랭킹 2위 전미정(26), 3위 이지희(29·이상 진로), 10위 신현주(27), 13위 송보배(22·슈페리어) 등이 신지와 함께 출전해 상급권이 유력한 후쿠시마 아키코, 그리고 일본 최고 인기 스타인 고가 미호, 요코미네 사쿠라, 모로미자토 시노부 등과 한판 대결을 펼친다.

2주 연속 일본 대회를 치른 신지에는 15일에 한국으로

일본·한국·미국 오가며

빡빡한 대회 일정 소화

일본	5일	골프5레이디스투너먼트
	11~14일	여자프로선수권
한국	19~21일	인비테이셔널
	24~26일	신세계배선수권
미국	10월 3일	삼성월드챔피언십

돌아와 19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신세계배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권대회(9월

24일~26일)에 출전하는 신지에는 숨돌릴 틈도 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10월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서이다.

딱 20명만 초청해 치르는 삼성월드챔피언십은 브리티시여자오픈 제패로 출전권을 따다.

삼성월드챔피언십 이후 일정도 숨이 잘 지경이다.

귀국하면 인천 영종도 스키야72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이 개막하는 10월 31일까지 국내대회가 3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총상금이 5억원에 이르는 하이트컵과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전은 상급권 3연패를 위해서는 거르기 어렵다.

신지에는 삼성월드챔피언십과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일본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인 미즈노클래식(11월7일~9일)에 출전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초청장을 보낸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11월14일~17일)은 출전이 확정됐다.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는 KBS N스포츠, 엑스포츠, J골프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계한다.

“LPGA 영어 의무화 반대”

‘세계 정상 女골퍼’ 오초아

세계정상의 여자골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사무국이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영어사용 의무화 방침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3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참석한 오초아가 선수들은 그들의 경기력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좋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광소 영어로 인터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오초아는 LPGA의 새로운 방침이 외국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차별이란 단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영어사용 의무화) 좀 과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LPGA 간판 선수라는 입



장 때문에 조심스레 답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어 의무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오초아에 앞서 최경주(38·나이키골프), 양혜 카브레라(아르헨티나),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속 선수들도 인터뷰를 통해 LPGA의 영어 의무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LPGA의 영어 의무화는 투어 소속 외국 선수 121명 중 45명이나 되는 한국 선수들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가운데 뒤쪽)이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팬들의 힘 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AS 모나코 이적 박주영 홈페이지 통해 고별인사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로 전적 이적한 박주영(23)이 전 소속팀인 FC서울의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별인사를 했다.

박주영은 3일 오전(한국시간) 서울 홈페이지에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사말을 남겼다. 지난달 31일 AS모나코 입단 절차를 밟기 위해 출국했던 박주영은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느라 인사도 못 드셨다”면서 “3년 반,

중국 ‘육상 영웅’ 류상 1년간 재활 치료 필요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10m 허들 경기를 기권한 류상(25·중국)이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가량 재활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과 AFP통신은 3일 중국 언론을 인용, 류상의 부상이 심각해 미국에서 수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재활 기간도 최대 1년이나 소요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양웨이강 상하이육상훈련센터장은 “전문의들이 류상의 오른쪽 발목 상태를 정밀검진하고 한달 내 치료방법을 발표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중국체육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자 신문 상하이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도 참여해 류상의 오른쪽 발목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컵축구 예선 남-북경기 10일 밤 9시 상하이서 개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남북대결 경기 시간이 10일 밤 9시(현지시간 8시)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월드컵 최종예선 남북전 킥오프 타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3차 예선 남북전(3월26일)때의 오후 8시보다 1시간 늦춰진 것이다.

예초 북한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 경기는 북한이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제3국인 상하이로 옮겨 치르게 됐다’.

허정무호는 5일 오후 8시 마포구 삼성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평가전을 치른 뒤 7일 오전 10시50분 상하이로 떠난다.

앤서니 김 라이더컵 美 대표 출전

미국과 유럽의 남자골프대항전 라이더컵에 출전할 선수가 확정됐다.

폴 에이징이 미국대표팀 단장은 3일(이하 한국시간) 추천 선수로 체드 캄벨, 스티브 스트리커, 헨터 메이헌, JB 흡스를 선택함으로써 라이더컵에 출전할 12명을 모두 확정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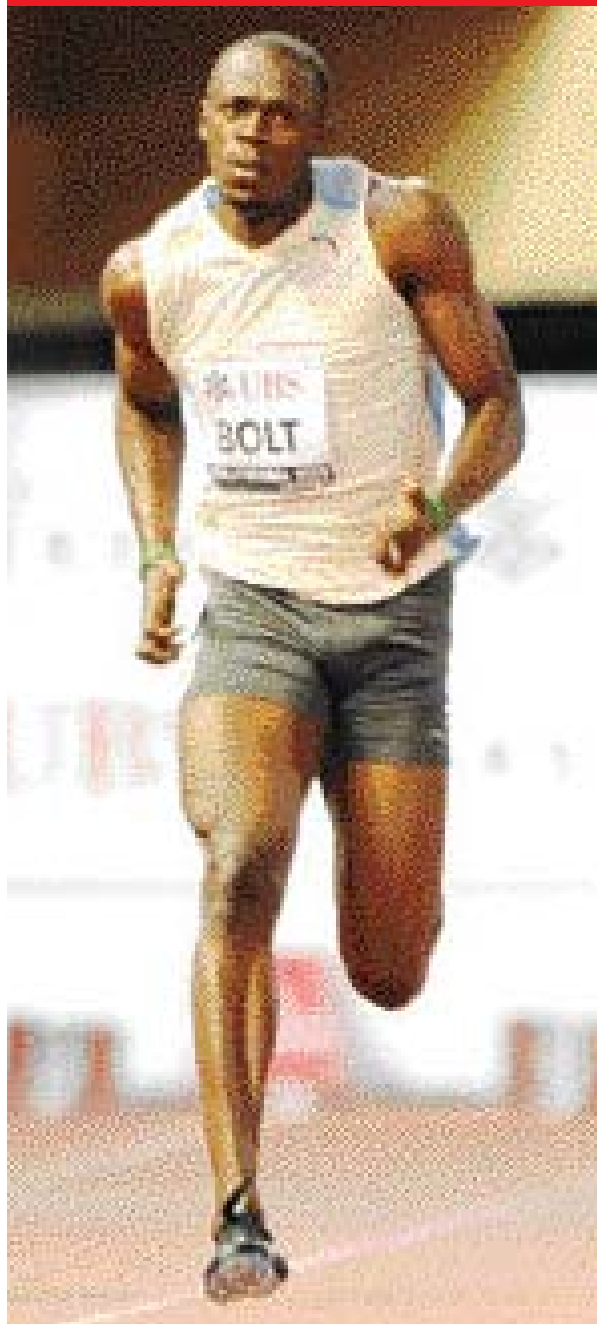
미국대표팀 멤버에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부상으로 빠졌고 필 미켈슨, 스투어트 싱크, 케니 페리, 짐 퓨릭, 앤서니 김(사진), 저스틴 레너드, 벤 커터스, 부 위클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거둔 성적에



단장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팀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 쇠렌 한센(덴마크), 로베르트 카를손(스웨덴), 그레이 맥도웰(북아일랜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헨릭 스텐손(스웨덴),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올리버 윌슨(잉글랜드), 폴 케이시(잉글랜드), 이언 풀러(잉글랜드)로 팀을 구성했다. 2년마다 열리는 라이더컵은 올해는 19일부터 사흘간 미국 캔터키주 루이빌의 벨헬러 골프장에서 개최된다.

볼트 ‘인간 탄환’ 경쟁 불 붙었다 파월



파월, 슈퍼 그랑프리 100m 우승

9초72... ‘세계新’ 볼트와 0.03초 차

볼트, 200m만 출전... 가볍게 1위

지난 5월까지 남자 육상 100m에서 세계기록(9초74)을 보유했던 아사과 파월(26·자메이카)이 1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고 현역 최고 스피리터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와 ‘인간 탄환’ 경쟁에 불을 지폈다.

파월은 3일 스위스 로잔에서 벌어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슈퍼 그랑프리 예슬레티사마 2008 대회 100m 결승에서 9초72를 찍고 우승했다.

지난해 9월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 찍은 자신의 최고기록(9초74)을 1년 만에 100분의 2초 앞당긴 파월은 볼트가 지난 6월1일 뉴욕 그랑프리대회 때 세운 종전 세계기록과 타이틀을 이루며 볼트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현재 세계기록은 볼트가 지난달 베이징올림픽 100m 우승 당시 작성한 9초69. 볼트가 9초6대 시대를 열어젖힌 것만 해도 놀라운 뉴스였으나 한 물 간 것으로 평가된 파월이 곧바로 추격전을 펼치면서 인간 한계로 여겨진 9초5대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파월은 또 9초대를 개인 통산 43번째로 주파,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한 모리스 그린(미국·52회) 기록에 9개 차로 다가갔다.

이날 100m 대신 200m에만 출전한 볼트는 19초63의 우수한 기록으로 2위권을 0.6초 이상 따돌리고 여유 있게 정상을 밟았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셸리 안 프레이저(22·자메이카)도 이날 여자 100m 결승에서 11초03으로 무난히 우승하는 등 올림픽 최고 뉴스메이커였던 자메이카 단거리 스타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졌다.

